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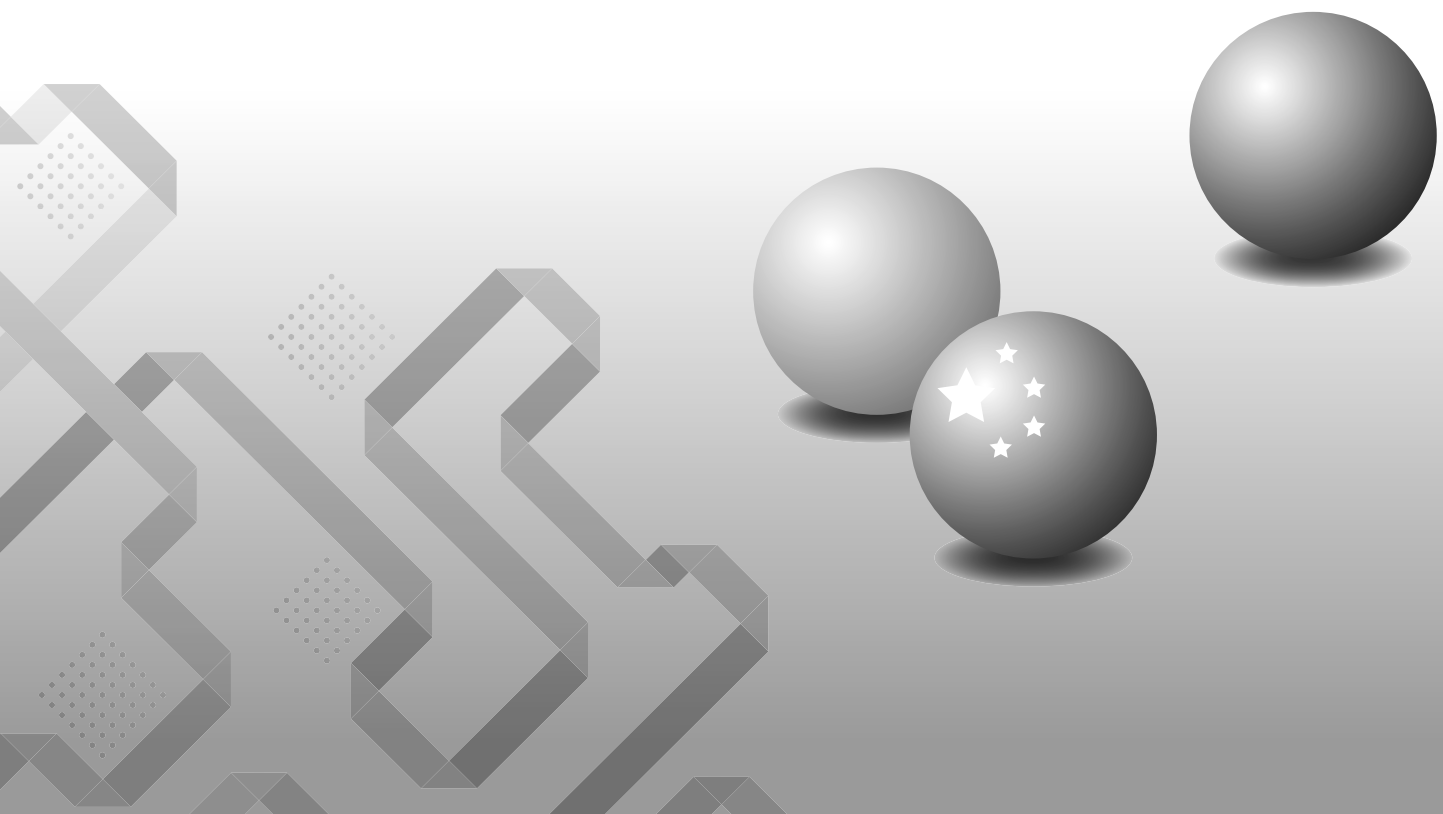
중국 지방정부 정책 동향

쓰촨성 '일대일로' 정책 및 성과

- 쓰촨성 '일대일로' 사업 추진 성과
- 쓰촨성 '일대일로' 전략에서의 핵심도시 _ 청두
- '일대일로' 쓰촨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포럼

전춘복

충남연구원 경제·산업연구실



충남도는 2018년 9월 3일, 중국 쓰촨성과 자매관계를 체결한 바 있다. 쓰촨성은 중국 ‘서부대개발’의 중심지이자 ‘일대일로’ 전략의 내륙지역 중심이기도 하다. 지난 10월 15일 쓰촨성에서 개최한 「‘일대일로’ 쓰촨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포럼(‘壹帶壹路’四川國際友城合作與發展論壇)(이하 쓰촨국제포럼)」에 충남도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. 이번 「쓰촨국제포럼」의 6개 세션 중 하나인 ‘3농 포럼’에 충청남도의 농림축산국과 충남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.

1. 쓰촨성 ‘일대일로’ 사업 추진 성과

중국 정부의 ‘일대일로’ 전략 구상

-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시 처음으로 제시한 육·해상 실크로드는 다음해 리커창총리가 전국양회 정부공작보고회에서 ‘일대일로’ 전략을 언급하면서 최근 몇 년 간 중국 최고의 발전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. 과거 ‘실크로드’는 아시아, 유럽, 아프리카를 두루 연결하는 고대의 무역노선이었다면, 오늘날 ‘일대일로’는 연선국가들과의 무역협작 뿐만 아니라 정치, 문화, 경제 전반의 교류를 이끌어내고 지역 간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, 서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경제 세계화를 구현해내는데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.



실크로드 경제지대

- 육상실크로드로서 내륙지역을 잇고, 신장자치구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경제벨트

21세기 해상 실크로드

- 중국 연해도시를 연결하고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

[그림 1] 중국 ‘일대일로’ 전략 구상도

출처: 아주경제

쓰촨성 ‘일대일로’ 연계 정책 및 사업

- 쓰촨성 인구는 약 8,300만 명이며, GDP는 중국 서부지역 12개성의 20%를 차지해 중국의 서부대개발 사업의 허브로 주목 받고 있다.
 - 사실상 ‘일대일로’ 전략을 통해 기존 중서부 내륙의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지역들이 선도적으로 대외개방을 함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쓰촨성은 핵심거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.



쓰촨성 개요

면적 : 48.6만 km²
 인구 : 8,341만 명
 GDP : 40,678억 위안
 행정구역 : 18개 지급시, 3개 자치주

[그림 2] 쓰촨성 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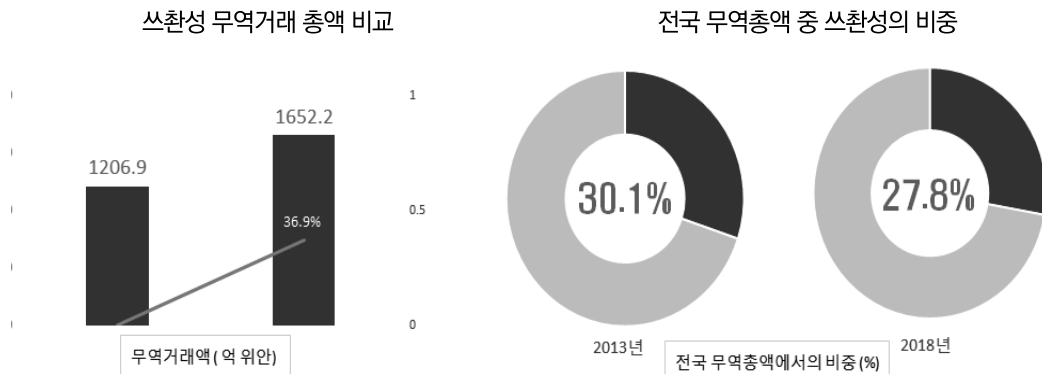
출처 : 바이두

- 쓰촨성은 중앙정부가 ‘일대일로’ 전략을 발표한 다음해인 2015년에 중앙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“251三年 행동계획”을 발표하였다. 이 계획에서 숫자 “251”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.
 - 2 : ‘일대일로’ 연선국가 중에서 20개 국가를 중점대상으로 선정
 - 5 : 연선 국가들과 50개의 양방향 중대 투자항목 체결 및 ‘중대항목에 대한 동향 모니터링 체계’ 구축
 - 1 : 성내 외자기업들 중에서 연선국가들과의 탄탄한 무역거래를 해온 100개의 기업을 선정해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운영실태를 관리하고 무역투자기업으로 중점육성
- 2015년 「쓰촨성의 실크로드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참여 실시방안(四川省參與建設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實施方案)」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‘일대일로’구상과 연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.

- 2017년 5월, 쓰촨성의 61개의 프로젝트가 국가 ‘일대일로’사업의 중대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. 같은 시기에 쓰촨성정부는 국가개혁발전위원회와 「쓰촨성 국제 생산능력과 장비제조의 합작 실시방안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. 이 조치들은 쓰촨성이 연선국가들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상을 담고있다.
- 2017년 8월 쓰촨성은 추가로 「쓰촨성 ‘일대일로’건설 추진 표준화 사업 실시방안(“壹帶壹路”建設標準化工作實施方案)」을 통해 무역과 투자 절차 간소화, 국제합작 심화, 기술 및 인재 교류 강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.
- 2017년 말에는 「교통물류융합발전실시방안(推動交通物流融合發展實施方案)」을 통해 ‘팔사삼연(八射三聯)’ 종합운송대통로를 건설해 ‘일대일로’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. ‘팔사(八射)’는 청두를 기점으로 하는 8개의 종합운송통로를 의미하고, ‘삼연(三聯)’은 장강 황금수로를 연결하는 3개의 운송통로를 의미한다.
- 2018년에는 주요영역에서 쓰촨성을 국제적인 ‘생산력합작시범성(產能合作示範省)’으로 건설하기 위해 「쓰촨성 국제생산능력합작 3년행동 지침(2018-2020)(四川省推進國際產能合作三年行動指引)」을 발표하였다.

쓰촨성 ‘일대일로’사업 추진 성과

- 중국정부의 ‘일대일로’ 구상이 제시된 지 6년째, 쓰촨성이 ‘일대일로’전략과 연계된 계획 발표와 사업을 실시한지 5년째에 들어서면서 쓰촨성의 사업성과가 눈에 띄게 들어나고 있다.
- 우선, ‘251三年 행동계획’ 추진과 국제적인 제조생산 분야의 합작을 강화한 결과, 연선국가들과의 무역수출입분야에서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쌍방향투자도 활발히 추진되었다.
 - ‘일대일로’ 정책을 추진하기 직전해인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, 무역총액이 36.9% 증가하였고, 5년간 무역총액의 누적 거래액은 7,04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.
 - 연선국가들과 중국 위안화를 이용하여 결제한 총 누적금액은 약 749억 위안에 달한다.
 - 해외 공사수주 및 도급 총액은 약 228억 달러에 달하며, 이 금액들은 주로 ‘일대일로’ 연선국가에 집중되어 있다.



[그림 3] 실크로드 연선국가들과의 무역거래액 비교

자료 : 중국일대일로홈페이지(中國壹帶壹路網)

- 그간 추진해온 교통인프라 건설로 실크로드는 연선국가들과의 교통수송문제에 있어서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게되었다.
 - 중-유럽 열차 누적 운행횟수 : 3,320회
 - 화물 물동량 : 총 95만톤 이상, 약 125억 달러
 - 운행노선 수 : 총 12개 국제노선이 국내외 주요 노선 25개와 연결
 - 항공편 : 61개 국제선(국내선 포함 총 114개 노선), 누적 2,613만명 운송
 - 항구건설 : 루저우항과 이빈항(瀘州港, 宜賓港) 중심으로 12개 노선 신규 취항
- ‘일대일로’ 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산업협약, 대외교류 등 협약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.
 - 혁신분야에서 실크로드는 총 16개의 혁신시험구를 건설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방정부로 꼽힌다.
 - 산업분야에서는 중·독(德)혁신산업협약플랫폼, 중·프(法)생태원, 중·한혁신창업원, 싱가포르·실크로혁신과학기술원, 중·이태리문화혁신단지, 중·독(德)중소기업협약원 등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산업협약 플랫폼을 구축하였다.
 - 중국-유럽센터를 건설, 운영 중에 있으며, 중국서부국제박람회를 통해 서부지역이 ‘일대일로’건설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세계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.
 - 이밖에 “판다가 세계로”, “실크로드의 불길이 실크로드를 빛내다” 등 지역문화활동을 통해 실크로드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알리는 활동도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.

2. 쓰촨성 '일대일로'사업의 핵심도시 - 청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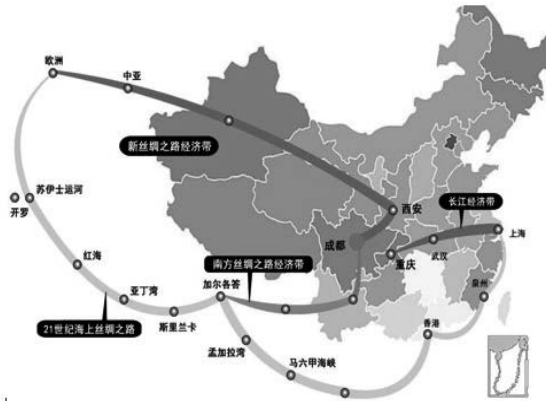
청두시 개요

- 면적 : 14,335km²
- 인구 : 1,633만 명
- GDP : 15,343억 위안
- 행정구역 : 11개 구, 4개 현, 5개 현급시

[그림 4] 쓰촨성 성도 청두시 개요 및 지도

출처 : 네이버백과, 바이두백과

- 청두시는 쓰촨성의 성도(1997년 충칭시에서 청두시로 성도 변경)이며 '일대일로' 국가전략과 창장경제지대 건설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. 청두시가 '일대일로' 전략에서 가지는 지리적 인 이점, 지역 전통산업 개혁, 신소재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육성, 전자상거래를 통한 현대물류산업 업그레이드 등 산업육성 측면에서의 강점은 청두시가 아세아와 유럽 국가들의 물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.
- 2015년 중국 국무원에서는 청두시를 놓고 '일대일로'전략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구상을 제시하였다.
 - 우선, 신실크로드와의 연결이다. 청두를 기점으로 내륙도시 서안시와 신강자치구를 가로 질러 서쪽의 신실크로드와 연결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방안이다.
 - 그리고 남쪽으로 미얀마 또는 운남성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의 연결이다.
 - 또 창장경제지대에 위치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동쪽으로 충칭, 우한, 상하이로 거쳐 동아시아로 나아가자 한다.



[그림 5] 청두시 '일대일로' 구상과의 교통 연결망

출처: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신문판공실(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)

1. 신실크로드경제지대 연결

- 서로 서안, 신강을 통해 신실크로드경제지대와 연결

2.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결

- 미얀마 혹은 운남성을 거쳐 동남아시아와 연결
- 해상실크로드와 유연하게, 능동적으로 연결

3. 동으로 충칭, 우한, 상하이로 거쳐 동아시아로 확대

- 최근 청두시는 '일대일로' 전략에서의 기회를 찾고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9월 「'일대일로' 건설三年 행동계획(2019 - 2021年(이하 계획)」을 발표하였다. 계획에서는 향후 3년간 청두시를 중심으로 하는 입체적인 전략구상을 통해 서부지역의 전략적인 통로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.

- 매년 국제항공편 5편 이상 증가 → 국제적인 '육해공 운송통로' 형성
- 국제 철도 7개 노선과 국제 철도와 해운 연결 운송통로 5개 구축
- '일대일로' 연선국가와 혁신 네트워크 구축 → '일대일로' 인재 자유항 조성
- 서비스 무역업 완화 정책 추진 → 연구개발 분야의 수출 지원
- 빅데이터 등 기술 분야 보급 및 응용 →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방 플랫폼 구축
- 연선국가와 공동으로 '해외중국문화센터' 건설 → 청두국제컨벤션센터 건설 추진

3. 2019 「‘일대일로’ 쓰촨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포럼」



<그림 7> 명상마을 사진들

자료: 浙江特色小镇官网(tsxz.zjol.com.cn)

- 10월 15일 ‘개방합작 · 호리공영(開放合作·互利共贏)’을 주제로 하는 2019 「“일대일로” 쓰촨 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포럼」이 청두에서 막을 열었다.
 -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제우호도시지도자포럼, 에너지와 인프라건설포럼, 과학기술혁신포럼, ‘3농’포럼, 무역과 물류포럼, 문화관광포럼 등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.
 -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쓰촨성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43개 지방정부가 참석하였다.
 - 이번 포럼은 국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기관이 연합 개최한 첫 ‘일대일로’ 우호도시 간 교류활동이며,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규모 및 포괄 영역이 가장 넓은 국제우호도시간 교류활동이다.

에너지 및 인프라 건설



과학기술혁신



[그림 기] '일대일로' 쓰촨국제우호도시 합작과 발전 포럼 현장 사진

출처 : 쓰촨인터넷뉴스(四川新聞網), 쓰촨신화망(新華網)

[세션1 : 에너지와 인프라건설]

- '에너지와 인프라 건설' 세션은 이번 포럼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국제우호도시에서 온 10명의 전문가, 기업가 대표들이 주제를 둘러싸고 발표하였다.
- 포럼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합작에 대해 금융지원, 프로젝트 합작 강화, 산업별 합작 강화 등 3가지 중점 방안을 도출하였다.

<표 1> '에너지와 인프라 건설' 세션 주요 논의 내용

방안	세부내용
금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효한 자금융통 플랫폼 구축 - 해외투자 영역을 적극 탐색 - 투자주체의 다원화 및 합작방식 다양화 등
프로젝트 합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 및 인프라건설 분야의 자문, 설계, 공사도급, 장비, 운영 관련 기업의 공동 진출 - 시기별 대표적인 프로젝트 공동 합작 등
산업합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호지역의 산업발전규획 공동 추진 - 국제에너지산업과 장비제조분야 합작 - 신흥산업발전 기회 모색 등

출처 : 온라인쓰촨(四川在線)

[세션2 : 과학기술혁신]

- 과학기술혁신 세션은 ‘개방, 협력, 공유’를 주제로 하고, ‘상호이해 증진과 우호관계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’을 목표로 구성되었다.
 - 포럼에서는 12명의 전문가들이 쓰촨성이 ‘일대일로’ 연선국가들과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산업혁신, 지역의 자원과 결합한 중점 혁신영역 발굴 등 사업의 협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.

‘3농’ 포럼



문화관광 포럼



[그림 8] ‘일대일로’ 쓰촨국제우호도시 협력과 발전 포럼 현장 사진

출처 : 쓰촨인터넷뉴스(四川新聞網), 쓰촨신화망(新華網)

[세션3 : ‘3농’포럼]

- ‘3농’포럼은 “일대일로 건설의 새로운 기회를 서로 공유하고 ‘3농’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 페이지를 개척하자”라는 주제 하에 국제우호도시에서 온 학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.
 - 포럼은 주로 ‘일대일로’ 연선국가들의 농업의 대외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, 스페인, 중국 청두 등 지역의 전문가들이 논의의 장을 벌렸다.
 - 최종적으로는 ‘혁신발전, 조화로운 발전, 녹색발전, 개방발전, 공유발전’으로 합의를 모았다.

[세션4 : 문화관광]

- 문화관광 세션은 ‘함께 논의하고, 함께 건설하고, 함께 공유하자’는 원칙하에 ‘개방협력, 호리공영’을 주제로 개최되었다.
 - 문화관광포럼에는 쓰촨성 16개 우호도시의 지도자들과 관계자가 참석하였다.

- 포럼에서는 쓰촨성과 교류 중인 국내외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, 상호 관광객을 송출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나가자고 합의하였다.

참고자료

정책자료 :

- 청두시 '일대일로' 건설 3년 행동계획에 대한 통지(成都市融入“一带一路”建设三年行动计划(2019-2021年)的通知)
- “251” 3년 행동계획(“251”三年行動計劃)
- '일대일로' 건설 표준화 공작실시방안(推進“壹帶壹路”建設標準化工作實施方案)

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:

四川省人民政府, <http://www.sc.gov.cn>
 成都市人民政府, <http://www.hangzhou.gov.cn>
 中國壹帶壹路網, <http://www.yidaiyilu.gov.cn>
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, <http://www.scio.gov.cn>

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:

融入“壹帶壹路”四川實施“251”三年行動計劃
<http://scnews.newssc.org/system/20151103/000615887.htm>
 四川省出臺《推進“壹帶壹路”建設標準化工作實施方案》
<http://www.cspress.com.cn/xinwenzhongxin/xingyedongtai/1210.html>
 圖懂 | “壹帶壹路”四川成績單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631667488487550953&wfr=spider&for=pc>
 “壹帶壹路”建設成果圖鑒 | 中歐班列發展迅速,看四川打造全面開放新格局
<https://www.yidaiyilu.gov.cn/xwzx/roll/87844.htm>
 未來三年,成都這樣融入“壹帶壹路”建設
<http://scnews.newssc.org/m/system/20191001/000999639.html>